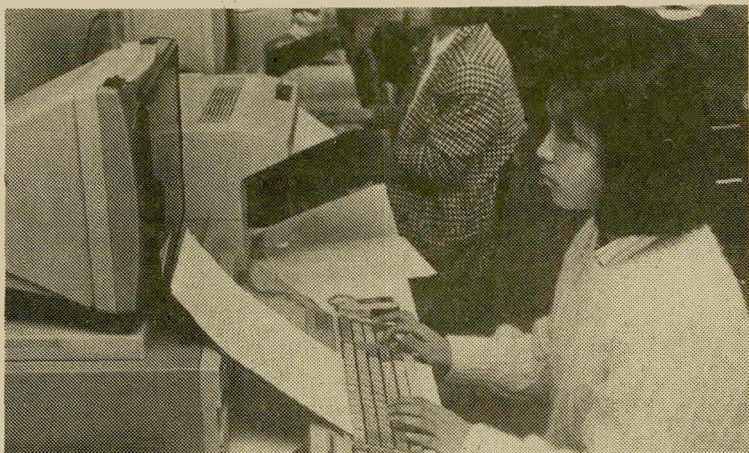


89.4.5



여성취업의 길은 모집·채용 광고에서의 남녀평등만으로 열리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얼마나 뽑아 업무에 배치하고 전문인력으로 계속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여성취업 아직도 좁은문

균등 모집광고 늘었으나 대졸 채용 적어

여성개발원·노동부 실태조사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이후 기업체들이 사원모집과 채용에서 여성에게 문호를 열긴 했으나 조사결과 실제 대기업에 취업된 여성의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윤덕)이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실시 1주년(4월1일)을 맞아 88년 10·11월 두달 동안 중앙 일간지에 2단 이상의 사원모집 광고를 낸 3백75개 기업체의 광고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85년 노동부 조사에 비해 여자에게도 균등하게 기회를 준 취업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만 채용’이 85년 60%에서 88년 20.4%로 현격히 줄어든 반면 ‘남녀 구분없이 채용’이 85년 15.7%에서 88년 53.2%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공기업체에서의 ‘남성만 채용’이 66.7%에서 9.4%로 줄어든 점도 두드러진다. ‘여성만 채용’하는 경우도 85년에는 1.4%였으나 88년에는 9.8%로 늘어났다.

산업별로 오락, 문화 관련서비스업에서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12분의 1정도로 줄고 남녀 구분없는 채용은 3배 이상이나 늘었다. 직종별로는 전문 기술 관련직의 경우 남녀 구분없는 채용이 6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88 주요대기업 대졸자 채용실태 조사결과’는 이러한 모집광고 내용과는 달리 대졸여성 취업의 어려움을 알려준다.

조사대상이 된 50대 기업그룹은 88년 2만6천5백23명의 대졸

자 중 남자는 95.8%인 2만5천4백22명, 여자는 단지 4.2%인 1천1백1명을 채용했다. 이는 87년 여성채용비율 4.4%에 비해 오히려 0.2%가 감소한 숫자다.

전체 채용숫자의 증감비율은 남자는 87년 2만3천5백67명에서 88년 2만5천4백22명으로 7.9% 증가했지만 여자는 87년 1천90명에서 88년 1천1백1명으로 1%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남자는 전체 대졸취업자의 35.9%가 50대 기업그룹에 채용되었으나 여자는 1.6%만이 채용돼, 남녀 공개 평등모집을 표방한 대기업체에 대졸여성 취업이 더 힘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개발원 조사에서 ‘여성만 채용’ 직종은 ‘고졸자 용모 단정하고 미혼인 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성 취업의 또다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